

“겨레는 하나...통일 큰걸음”

남북 불교대표 봉축 인사말 교환...정부 “불교계 남북교류 지원”

“부처님 법이 하나이듯 우리 겨레도 풀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남북불교를 대표하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각각 남·북 불자들이 보내는 인사말을 교환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그동안 남북 불교도 공동발원문을 봉축법요식에서 봉독했지만, 남북의 불교지도자가 인사말을 서로 교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발원문과 별도로 남북의 불교대표가 인사말을 교환한 것은 이

전까지의 남북불교교류보다 폭넓은 교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불교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문화관광부가 남북불교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사말을 교환함으로써 이후 교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인사말 교환과 관련, 조계종총무원 사회부는 “북측에서 먼저 인사말을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이 답하는 형식을 띠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대스님은 “북녘동포들에게 보내는 봉축인사말”을 통해 “1600년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불교도들

이 단합한다면 반세기의 반목과 대결은 불멸에 녹아나는 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며 “부처님의 한량 없는 법을 따라 상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불자들이 민족의 화합과 공생을 위한 서원을 모으면 민족의 미래는 더없이 낙관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별련 박태화 위원장은 “부처님 탄생일에 북과 남의 불자들이 조국

통일의 서원을 안고 통일기원 동시법회를 가지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며 “종단과 단체, 지역과 연령, 성별의 울타리를 풀어나고 앞선 자는 자만하지 말고 뒤진 자는 부지런히 뛰어 모두 함께 통일의 대공장에 들어설 때 불교는 겨레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불교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의 인사말은 1일, 박태화 위원장의 인사말은 4월 28일 녹스를 통해 전달됐다.

문화관광부는 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0년도 중점개혁과제를 보고하면서 남북종교교류와 관련 △종교계의 남북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종교축일 행사(부처님 오신날, 부활절) 남북한 공동개최 등의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은 4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문화재에 관한 남북교류가 없었던 데다 북한 문화유적의 보존상태가 매우 부실한 만큼 이 분야에 협력의 무게를 실겠다”고 말했다. 이후 남북문화교류에 불교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날 중가청 민족화합공동체추진본부를 발족하고, 북한문화재 남북공동조사, 북한 불교문화재 서울 전시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buddhanews.com
 붓다뉴스닷컴
 교계 첫 日刊 사이버불교신문
6월1일 오픈합니다

불교계 정보화를 선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6월1일부터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불교뉴스 전문사이트 붓다뉴스닷컴(www.buddhanews.com)을 선보입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는 그동안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서비스해온 인터넷신문을 불교뉴스 전문사이트로 확대 개편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 교계 최초의 일간 사이버신문입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는 교계의 뉴스를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교계 최대규모로 구축된 불교DB '부다피아'와의 연계 검색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의 강점인 정보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쌍방향 교신도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매일매일 서비스되는 '붓다뉴스'는 기존의 종이매체 현대불교신문에서 제공하는 그날의 종합뉴스와 불교강좌, 학술문화, 교육, 신앙·생활정보를 전 영역에 걸쳐 기자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존신문이 지면 제약으로 실지 못했던 기사를 모두 볼 수 있고 각종 부가정보와 심층분석기사 등 다양하고 풍성한 정보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기획특집기사, 해외불교, 최신불교정보, 사이트 여행에서는 산사 큰스님들의 사자후인 감로수 같은 법문과 1600년 전통의 한국불교문화, 21세기 새문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 관련자료와 국내외 불교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실, 생명나눔캠페인, 부다카페, 칼럼, 들부처찾기는 특화된 서비스로, 클릭 사이버뉴스부장·나도한마디·꿈앗이등 10여개의 대화창은 쌍방향 정보교류의 장으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교계 최초로 선보이는 '붓다뉴스'에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만물에 불성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 소중”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은 4일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신을 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오셨다”며 “지구환경의 파괴로 모든 존재가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하다는 것

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불자들이 앞장서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력을 이루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남진을 종식시키는데 크게 공헌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봉축등을 전국 60여 사찰에 현등했다.
 도광선 기자
 (pedo@buddhapia.com)



은 누리 밝히는 연등행렬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3km구간에서 7일 펼쳐진 제등행렬에 참가한 5만여명의 불자들이 아가부처님 장엄불과 각종 사진=고영배 기자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7일 연등축제 5만여 불자 동참

60여 도시서 제등행진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펼쳐졌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행진에는 조계종 대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5개 종단 총무원장과 100여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 5만여명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이날 밤 12시부터 우정국로에서는 불교단체들이 연등행진, 전통문양 탁본 체험마당, 우리농산물 장터 등을 마련해 축제분위기를 북돋우며 외국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6일과 7일, 10일 부산역광장 등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했으며, 전국 60여개 도시에서도 지역봉축위원회 주최로 4일부터 봉축행사를 거행했다. <연등축제 화보 18, 19면> 정성운 기자

부처님 오신날 특집 32면 발행

봉축대담-禪과 21세기	3면
큰스님과의 대화-조계종 전계대회상 범룡스님	16·17면
봉축 동화 '부처님이 눈을 떴어요'	27면
시진으로 보는 연등축제	18·19면
좌담-새 시대 새 불자상 정립	4면
오늘의 10대 제자가 되자	5면
교계 정보화 과제와 전망	10면
사이버 불자 유인씨의 하루	11면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주요기능 및 서비스

- 휴대전화 기능
- 무선 인터넷 검색
- E-mail 송수신
- 주소록 기능
- 스케줄관리 기능
- MP3플레이어 기능
- 실시간 불교뉴스
- 공연/전시회 소식
- 오늘의 법문
- 찬불가 듣고 배우기
- 전통사찰 소개
- 오늘의 생활지혜
- 쇼핑/경매기능

프리즘정보통신(주)

- 휴대 무선단말기 SPEC**
 화면 해상도 640×480
 Windows CE 탑재
 핸드폰 기능(CDMA) 통신기능
 무선데이터 전송속도 50K이상
 65530 VGA 칼라
- 무선불교정보서비스**
 불교실시간 뉴스, 공연/전시회 오늘의 법문, 찬불가 듣고 배우기, 전통사찰 소개, 오늘의 생활지혜 등이 7월중 무선불교정보로 서비스 됩니다.
 무선 인터넷 검색과 E-mail 송수신, PDA기능등과 함께 제공될 무선불교정보서비스 단말기는 현대불교신문사 인터넷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MP3,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검색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단말기만 있으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mahamall.co.kr TEL: 737-8881(代)/732-1522